
오픈뱅킹 전면시행

2019. 12. 18.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금 융 결 제 원



금 융 보 안 원

목 차

1. 추진배경	1
[참고 1] 오픈뱅킹 해외사례	2
2. 추진경과	3
3. 오픈뱅킹 개요	4
[참고 2] 한국형 Open Banking의 특징	7
4. 시범실시(10.30.~12.17.) 결과	8
5. 전면시행(12.18.) 주요내용	10
[참고 3] 오픈뱅킹 전면시행 참여 이용기관	11
6. 기대효과	15
7. 향후 계획	17

1 추진배경

- 금융결제 및 데이터 분야는 금융혁신의 핵심기반으로 금융, 실물, 대외 인프라 전반에 걸쳐 연결성과 파급력이 큰 영역

* 특히, IT·모바일 기술과 결합하면서 금융결제·데이터의 파급력이 더욱 확대

- 주요국들은 은행 외 핀테크 기업 등에게 은행 계좌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오픈뱅킹을 통해 결제 인프라를 전면 혁신 중

※ 【참고 1 : 오픈뱅킹 해외사례】 참조

- 반면, 우리나라는 결제 및 데이터 인프라의 폐쇄성으로 인해 금융산업 혁신 추진에 근본적 한계 내재

- ①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핀테크 기업은 모든 은행과 제휴* 필요 → 핀테크 기업의 진입이 제약된 “폐쇄적 구조”

* 특정 은행이 제휴를 거절할 경우 결제수단으로서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

- ② 제휴시 높은 이용료* 부과 → 핀테크 기업의 “과도한 비용부담”

* 1건당 약 400~500원 내외 수준(평균결제금액 3만원 가정시 약 1.5% 수준)

- ③ 은행도 자기고객에 한해 결제·송금 → “플랫폼으로 성장 제한”

- ④ 고객은 거래은행 수만큼 은행앱 설치 → “금융소비자 불편”

- 이에 오픈뱅킹 도입을 통해 금융결제망의 개방과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발표(19.2.25.)

- 8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10.30일 은행권부터 시범실시에 착수하여 금융권과 국민들의 관심 속에 서비스가 안착되는 모습

- 시범실시 기간 동안 시스템 기능·보안 개선 및 핀테크 업계의 준비를 거쳐 금일 9시부터 오픈뱅킹을 전면시행

- 향후에는 안정적 시스템 운영과 함께 보다 광범위한 금융혁신 촉발을 위해 오픈뱅킹 고도화 추진 → “오픈 파이낸스”

참고 1

오픈뱅킹 해외사례

- 오픈뱅킹은 금융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로서 해외 주요국은 이미 관련 법, 지침 등을 개정하여 제도를 시행 중

국가명	오픈뱅킹 관련 정책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2) 도입('18.1월) ✓ 은행 API를 핀테크 기업에 수수료 등 차별 없이 제공토록 의무화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는 '개인정보이동권'을 도입하여 고객의 정보 자기결정권 강화('18.5월)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대 주요 은행 대상 오픈 API 서비스 실시('18.1월) ✓ 은행들이 오픈 API를 통해 타은행의 고객 정보를 받아, 타은행 계좌 접근 등 다양한 서비스 실시 → 은행의 결제기능 강화 및 경쟁 확대 ○ 英OBIE(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는 기술사양, 보안 등 API 표준요건을 담은 Open Banking Standard 3.0 발표('18.9월) ※ 英 오픈뱅킹 API 이용건수는 '19.10월 1.8억건으로 전년 동월(1,390만건)대비 약 13배 성장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부에서 오픈뱅킹 구현을 위한 권고안 발표('18.2월) ✓ (4대 주요은행) '19.7월 신용·직불카드 및 예금·거래계좌부터 시작하여 '20.2월까지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확대 예정 ✓ (기타 은행) 12개월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확대, '22.7월 전 은행권의 전 금융상품에 대한 API 공개 예정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법 개정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API 제공 등 의무화('18.6월) ✓ 핀테크 기업에 대한 API 제공 기준 공시 및 기준 충족업체에 대해 API 제공 의무화 (법 시행 후 2년내 은행 API 구축 노력 명시) ⇒ 日당국, '20년까지 110개 은행이 API 공개 완료 예상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태지역 최초로 오픈뱅킹 지침 발표('16년) ✓ 정부 주도의 금융데이터 개방 유도 정책* 추진 중 * 은행(Citi, OCBC 등), 지급결제업체(NETS) 등이 거래내역 등 약 310여종 API 개방 중이며, MAS도 감독 관련 API를 개방하여 레그테크 부문 발전 도모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금융관리국에서 'Open API Framework'를 마련('18.7월) ✓ 단계별* 오픈뱅킹 추진 중 * 1단계(은행상품 및 서비스 정보), 2단계(고객의 취득 및 신규 신청), 3단계(계좌정보), 4단계(거래처리)로 구분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규정 없이 시장 자율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오픈뱅킹 추진

2 추진 경과

① '16.8월 공동 오픈플랫폼 도입·운영

- 오픈뱅킹의 전 단계로 공동 오픈플랫폼이 운영되었으나, 제한된 범위의 이용기관*, 높은 이용료**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

* 이용기관이 소형 핀테크 기업으로 한정, 제공기관에 인터넷전문은행 제외 등

** 기존 이체 API는 이용료가 건당 400~500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

② 오픈뱅킹 도입 발표('19.2.25.) 및 세부 추진 방안 마련(3~6월)

- 은행권 합의를 거쳐 개방형 공동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발표(금융지주사 간담회)

기본원칙	추진방안
① 참여대상 확대	① (이용기관) 모든 핀테크 사업자 + 은행 ② (제공기관) 일반은행(16개) → 인터넷전문은행(2개) 추가
② 이용료 조정	① 현행 대비 1/10 수준으로 조정 ② 중소형 핀테크 기업은 1/20 수준까지 적용가능
③ 시스템 운영개선	① 거래규모 확대에 대비한 금결원 전산시스템 탄력적 증설 ② 운영시간 확대(연중무휴 00:05~23:55), 24시간 장애대응 체계 마련 ③ 보안성 기준 마련 및 이용기관 보안수준별 운영방식 차등 적용

- 은행권과 핀테크 업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방안* 마련

* 오픈뱅킹 참여(제공, 이용) 기관, 이용 수수료 수준, 추진 일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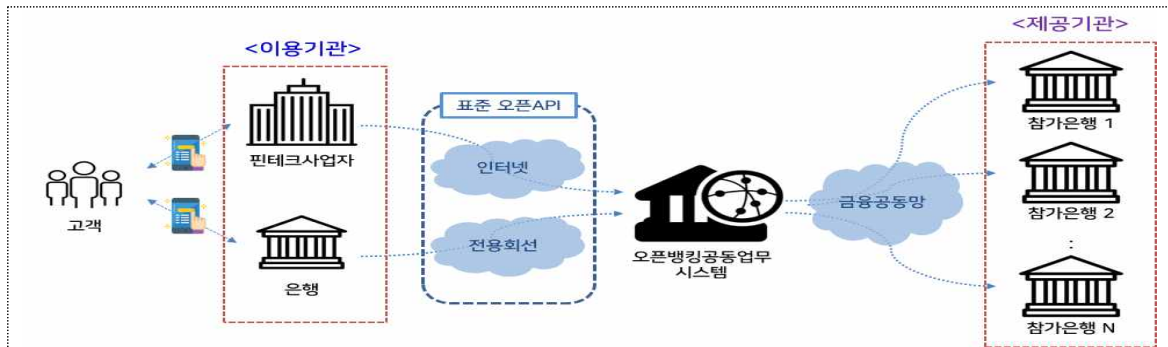
③ 오픈뱅킹 시범실시(10.30.) 및 전면시행(12.18.) 준비

- 금융결제원 중계시스템 증설 및 고도화로 시스템 안정성 확보
- 오픈뱅킹 운영규약 마련 및 보안점검 등 이용계약 체결 준비
- 오픈뱅킹 은행권 대고객 시범서비스 실시(10.30.~12.17.)

3 오픈뱅킹 개요

① (구조) 개별 은행과의 제휴가 필요 없는 공동형 플랫폼

- 오픈뱅킹 이용기관은 시스템 접속만으로 전체 참가은행(18개)과 연결되어 모든 은행의 결제망 이용



② (참여기관) 은행 및 대형 핀테크 업체도 참여 허용

- 은행이 제공기관으로서 일방적인 정보제공 의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용기관으로도 참가하여 오픈뱅킹을 적극 주도
- 대형 핀테크 업체도 참여를 허용하여 오픈뱅킹 시스템의 범용성을 높이고 지급결제 산업을 활성화

③ (제공서비스) 이체, 조회 관련 핵심 금융서비스를 6개 API로 제공

- 외국의 오픈뱅킹은 데이터 내역이 전송되는 조회형 API 중심이나 한국의 경우 입출금 기능이 실행되는 실행형 API까지 포함

구분	세부 내용
조회	① 잔액조회 : 사용자 본인계좌의 잔액 조회
	② 거래내역조회 : 사용자 본인계좌 입출금내역 조회
	③ 계좌실명조회 : 이용기관이 사용자 계좌의 유효성 및 예금주명 조회
	④ 송금인정보조회 : 이용기관 계좌로 입금한 사용자명 및 송금계좌번호 조회
이체	⑤ 출금이체 : 사용자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이용기관 계좌로 입금
	⑥ 입금이체 : 이용기관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자 계좌로 입금

④ (수수료) 기존 대비 1/10 수준(중소형은 1/20)으로 조정

- 핀테크 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기존 대비 1/10 수준으로 인하하고 추후 운영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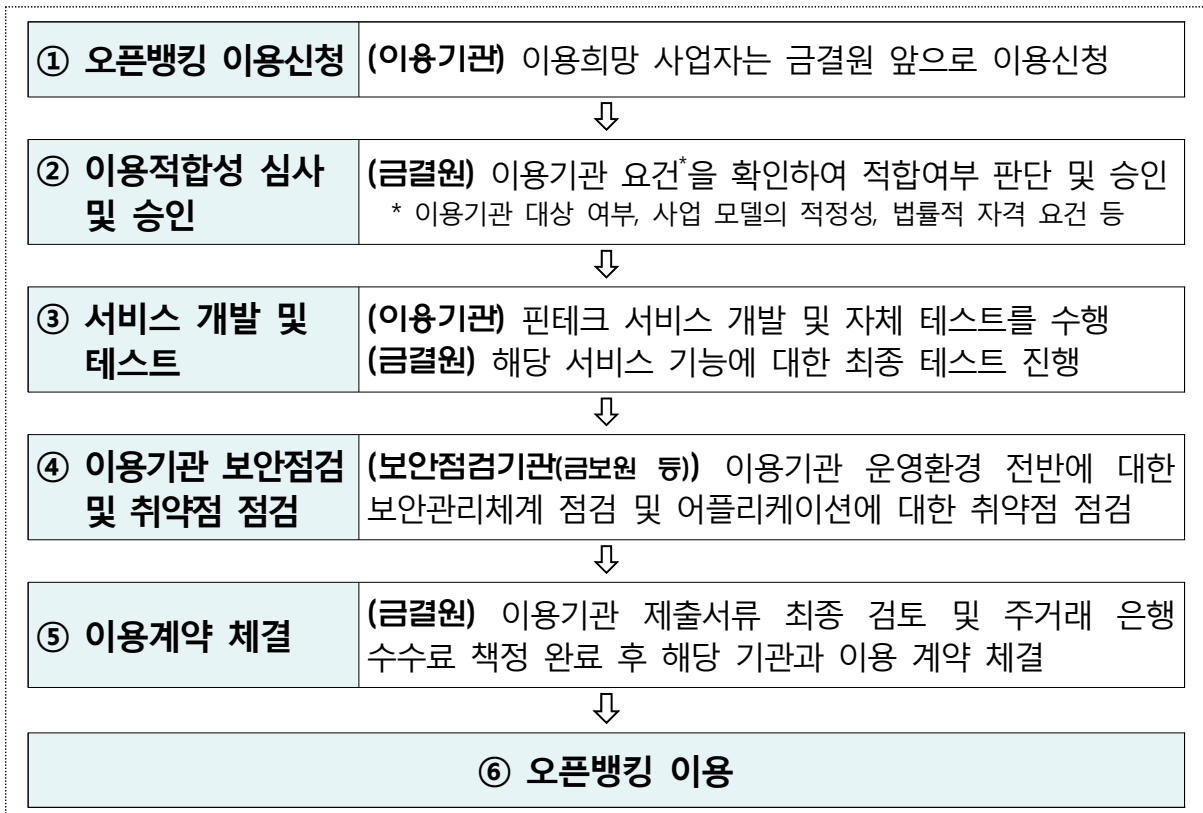
업 무 \ 구 분		현행 비용	기본비용 (대형)	경감비용 (중소형*)
조회	잔액조회	10원	10원	5원
	거래내역조회	50원	30원	20원
	계좌실명조회	100원	50원	30원
	송금인정보조회	300원	50원	30원
이체	출금이체	500원	50원	30원
	입금이체	400원	40원	20원

* 경감비용 적용기준 : (이체) 월 거래금액 100억원 ↓ & (조회) 월 거래건수 10만건 ↓

⑤ (이용절차) 이용적합성 심사, 보안점검 등 사전검증 후 참여

- 이용적합성 심사, 서비스 기능테스트 및 보안성 점검 등 사전검증을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

[오픈뱅킹 이용절차]



⑥ (안정성 및 보안) 운영기관 시스템 안정 및 이용기관 보안점검

- 기존 운영시스템 증설*, 24시간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을 통한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등 금융결제원 중계시스템 안정성 확보

* (기존 저장용량) 4TB → (증설 후) 60TB

- 금융보안원 점검(①이용기관 점검, ②핀테크서비스 취약점 점검)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보안성을 철저하게 검증

- ▶ (이용기관 보안점검) 이용기관이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관리·물라기술적 보안점검 항목을 바탕으로 점검(30개 항목)



- ▶ (핀테크서비스 취약점 점검) 오픈API를 이용한 핀테크서비스(앱/웹)에 대해 중요정보보호, 거래정보 위변조, 서버 보안 등 취약점 점검(웹 12개, 앱 17개 항목)



⑦ (소비자보호)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보상체계 마련

- 금융사고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통합 일간 출금 이체 한도 1천만원 설정(추후 운영상황에 따라 상향여부 검토)

※ 예) A은행앱에서 1천만원 출금시, 당일 B은행앱에서 추가 출금 불가

- 부정사용 등 금융사고시 운영기관(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보상수단 확보를 위해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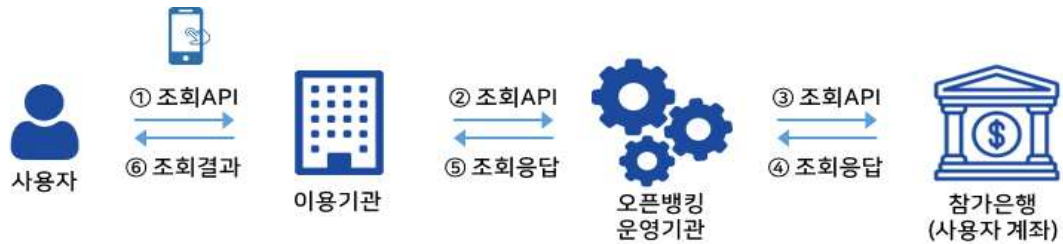
* 재무건전성, 리스크 관리 등에 따라 일 출금한도의 200%에서 조정 (최저 100%, 최대 300%)

참고 2

한국형 Open Banking의 특징

- **(공동 플랫폼)** 개별계약으로 운영되는 외국과 달리 운영기관(금융결제원)에서 이용기관과 제공기관을 중계

- 개별 은행과 제휴 없이도 오픈뱅킹 공동업무 시스템 접속으로 전체 참가은행(18개)이 연결될 수 있는 **공동형 플랫폼**



- **(API 유형)** 영국, 호주 등은 단순 **조회형 API** 중심으로 오픈뱅킹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입출금 기능의 **실행형 API**까지 포함
- **(은행의 지위)** 은행은 단순히 계좌 제공기관으로만 참여하지 않고 이용기관으로도 참여하여 **오픈뱅킹 적극 주도**
- **(참가기관 수)** 영국(9개 은행), 호주(4개 은행) 등 일부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참가하는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모든 은행(18개) 참가**
- **(적극행정)** API 의무개방을 규정한 법령 마련 이전에 은행 간 협약에 근거하여 오픈뱅킹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

< 오픈뱅킹 관련 국가별 규정(출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19.11월) >

구 분	해당 국가
관련 법령에서 은행이 허가된 제3자와 정보공유를 하도록 요구하는 오픈뱅킹 규정	EU, 멕시코, 남아공, 인도, 태국
오픈 뱅킹 지침 발행(정보 공유 권장)	한국, 홍콩, 싱가포르
오픈 뱅킹 규정을 개발하는 과정	호주, 브라질, 러시아
오픈 뱅킹 채택을 적극적으로 고려	캐나다, 터키
시장자율(오픈뱅킹 규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미국, 중국, 아르헨티나

- **(데이터 산업과의 연계)**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시 결제와 데이터를 연계한 오픈뱅킹 운영 가능

4 시범실시(10.30~12.17.) 결과

① (개요) 10.30.(수) 10개 은행이 대고객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여 전면시행 전 고객인지도 제고 및 준비사항 점검·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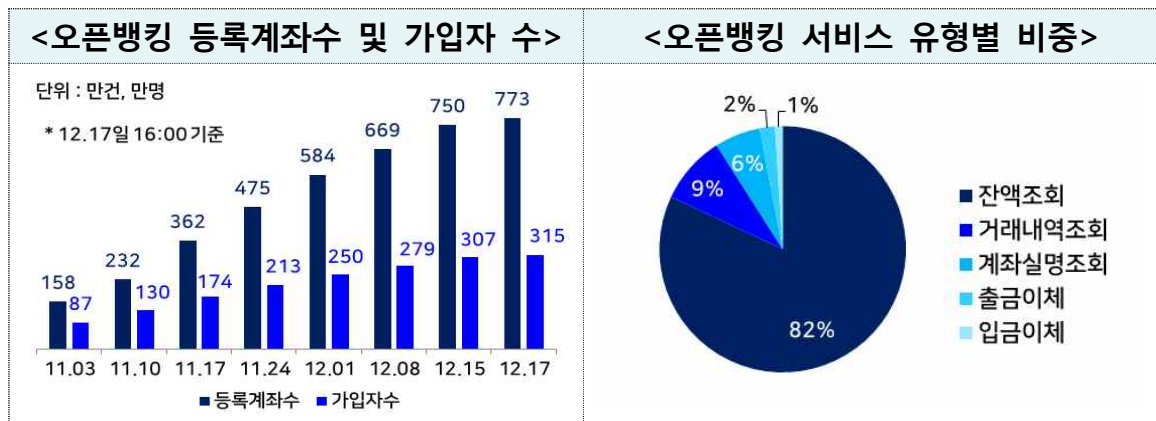
○ 제공기관(참가은행)으로서의 역할은 18개 모든 은행이 실시

※ (10.30.) 국민, 신한 우리, 기업, 농협, 하나,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참여
(11.18.) 광주은행, (11.29.) 대구은행, (12.16.) SC제일은행, 수협은행

② (결과) 약 50일(10.30일~12.17일)간 315만명이 오픈뱅킹에 가입하여 773만 계좌를 등록, 8,392만 건(API)을 이용

○ 시범실시 첫날 51만명 가입한 이후 일평균 주중 8만명, 주말 3만명이 가입하여 1인당 평균 2.5개의 계좌를 등록

○ 서비스는 잔액조회(82%), 거래내역조회(9%), 계좌실명조회(6%), 출금이체(2%) 순으로 이용되었음



【사례 1 : 영국 오픈뱅킹('18.1월 도입)】

○ 영국은 도입('18.1월) 후 4개월이 지난 시점('18.5월)에서 일평균 약 3.3만건이 이용되었으나 국내는 약 50일간 일평균 171만건 이용되어 이용률이 매우 높은 수준

※ 다만, 영국은 9대 주요 은행에 한정된 제공기관이 잔액정보, 거래기록 정보 등 조회 중심 API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어 한국과 일률적 비교는 어려움

< 영국 오픈뱅킹 월간 일평균 API 이용건수 추이 (단위 : 만건) >

구분	'18. 1월	'18. 5월	'18. 11월	'19. 5월	'19. 8월	'19.10월
이용건수	서비스개시	3.3	58.3	192	356	602

- ③ **(의의)** 금융권 및 국민들의 관심 속에 서비스가 안착되는 가운데, 신속한 기능 보완을 통해 보다 개선된 서비스 제공

- ① **(계좌등록)** 7개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앱과 어카운트인포가 연계* 되어 계좌 조회 후 등록가능(11.11.)

* 12.17.부터 16개 은행앱과 연계되며, 산업 및 카카오뱅크는 '20년 상반기 중 연계예정

<계좌등록 편의>



- ② **(수취계좌확인)**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출금내역에 이용기관과 수취인명*을 같이 기재(12.7.)

* (기존) □□은행오픈뱅킹 →
(개선) □□오픈_홍길동

<수취계좌 확인>



- ③ **(FDS 탐지 강화)** 이상거래 차단을 위해 FDS 탐지결과를 실시간으로 (10분 단위) 전송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12.7.)

<이상거래 탐지>



- ④ **(보안대응 모의훈련)** 오픈뱅킹 보안 체계 강화를 위해 IT리스크 합동 훈련 실시(12.13.)

<보안대응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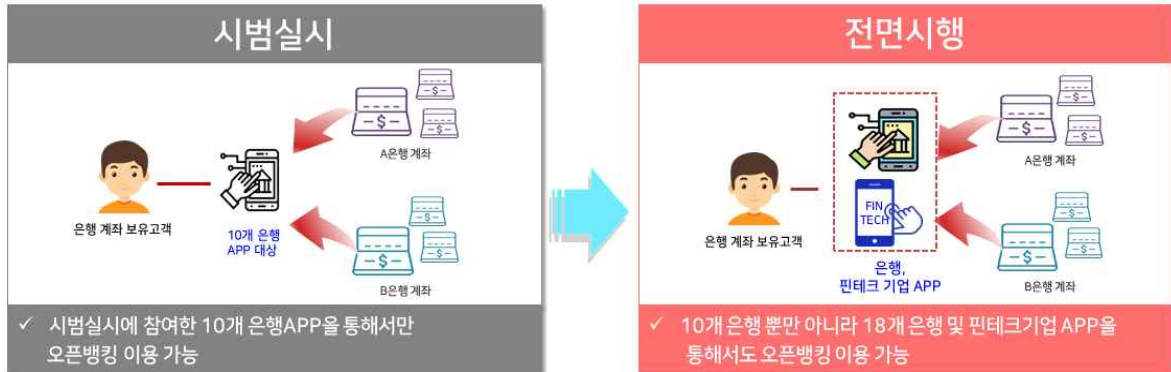


【사례 2 : A 은행의 오픈뱅킹 시범운영 미시분석】

- ▶ **(연령대)** A 은행 등록 오픈뱅킹 고객의 30대가 31%, 40대가 26%, 20대가 22% 등으로 이용자의 과반이 3·40대 이용자
- ▶ **(고객군)** 이용자의 과반이 직장인(51%)으로 개인사업자는 10% 이하
- ▶ **(건당 거래금액)** 건당 출금한도가 1천만원임에도 건당 거래 금액은 100만원 이하 소액 송금 이용이 대부분
- ▶ **(거래빈도)** 인당 이체 빈도는 1건 거래 비중이 60% 이상으로 이체보다 조회 목적으로 오픈뱅킹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5 전면시행(12.18.) 추진내용

① (개요) 12.18일 9시부터 총 47개 이용기관이 서비스 제공



- 12.17일까지 이용을 신청한 기관은 177개*로 이 중 준비를 마친 은행 16개, 핀테크 기업 31개 등 47개 이용기관이 우선 참여

* 은행 18개, 핀테크사업자 133개, 기존 오픈플랫폼 실시기관 26개

- 47개사는 간편송금 분야(은행 포함 22개사), 해외송금(13개사), 중개서비스(6개사), 자산관리(5개사) 등으로 구성

< 이용신청 및 승인현황('19.12.17일 기준) >

구 분	신청	승인	기능Test	전면시행 참여 기관		
				기관수	비고	
은행	18개	—	—	16개	분야	개수
핀테크사업자	133개	95개	12개	7개	간편송금	22개
기존 오픈플랫폼 기관	26개	—	—	24개	해외송금	13개
					중개서비스	6개
					자산관리	5개
합 계	177개	95개	12개	47개		

- 16개 은행이 이용기관으로 참여하였으며, 나머지 2개 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 참여 예정

* 씨티은행('20.1.7.), 카카오뱅크('20.上)

- 핀테크 기업의 경우에도 보안점검 등을 완료한 이후 순차적으로 참여 예정

참고 3

오픈뱅킹 전면시행 참여 이용기관

No	구분	기관명	분야	사업모델
1 ~ 16	은행 (16)	산업, 농협, 신한, 우리, 제일, 하나, 기업, 국민,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간편송금/결제	간편송금/결제
17	핀테크 기업 (7)	비바리퍼블리카 (토스)	간편송금/결제	간편송금/결제
18		핑크	간편송금/결제	간편송금/결제
19		카카오페이	간편송금/결제	간편송금/결제
20		디셈버앳컴퍼니 (핀트)	자산관리	금융투자서비스
21		세틀뱅크	간편송금/결제	간편송금/결제
22		레이니스트 (뱅크샐러드)	자산관리	자산관리플랫폼
23		쿠콘	간편송금/결제	간편송금/결제
24	기존 오픈플랫폼 이용기관 (24)	뱅크웨어글로벌	자산관리	모임 회비관리
25		센트비	해외송금	소액해외송금
26		바로SVC	중개서비스	계좌 유효성 검증
27		티소프트	중개서비스	비대면 본인확인
28		인스타페이	간편송금/결제	간편송금/결제
29		오투이투	중개서비스	배달기사 수행료 납부
30		다노	쇼핑몰	쇼핑몰 환불금 납부
31		핑거	해외송금	소액해외송금
32		적시타	자산관리	계좌 통합조회
33		더재무컨설팅	자산관리	자산관리플랫폼
34		지머니트랜스	해외송금	소액해외송금
35		엔앳피코리아	해외송금	소액해외송금
36		플리토	중개서비스	번역료 정산
37		이나인페이	해외송금	소액해외송금
38		핀샷	해외송금	소액해외송금
39		스타레밋	해외송금	소액해외송금
40		시스퀘어코리아	해외송금	소액해외송금
41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해외송금	소액해외송금
42		한패스	해외송금	소액해외송금
43		씨앳비	해외송금	소액해외송금
44		오지큐	중개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마켓
45		모바일통	해외송금	모바일 환전 서비스
46		인터콜	해외송금	소액해외송금
47		풀러스	중개서비스	카풀중개서비스

2 이용기관별 서비스 내용


은 행

- 시범실시 당일 **오픈뱅킹 이용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은행도 추가 참여*할 예정이며 제공되는 오픈뱅킹 기본 서비스는 동일

* 광주(11.18.), 대구(11.29.), SC제일(12.16.), 수협(12.16.), 케이(12.18.), 산업(12.18.)

- 시범실시 중에는 은행 간 경쟁이었으나 전면시행 후 핀테크 기업과도 경쟁할 예정으로 특화서비스 출시에 더욱 집중할 전망

- 은행별로 오픈뱅킹 전면시행에 맞춰 우대금리 상품, 납부기일·자산관리 등 오픈뱅킹 연계상품을 제공할 예정

① 자금집금 서비스	② 오픈뱅킹 특화상품
 <p>여러 은행 계좌를 한번에 이체하여 자금모으기</p>	 <p>오픈뱅킹 특화 예금상품 출시 (오픈뱅킹 통한 상품 가입 우대 금리 제공)</p>
③ 통합자산관리	④ 손쉬운 환전
 <p>오픈뱅킹 등록 타행계좌를 결합한 자산관리서비스 및 맞춤형 상품추천</p>	 <p>다수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집금하여 환전·외화 송금</p>
⑤ 간편결제 충전	⑥ 더치페이
 <p>모바일 간편결제(페이서비스) 이용시 여러 은행 계좌에서 손쉬운 충전·결제</p>	 <p>여러 타행계좌를 활용하여 더치페이</p>
⑦ 결제대금 선결제	⑧ 지능형 납부기일관리
 <p>오픈뱅킹 타행출금 기능을 이용한 결제대금 선결제 기능 제공</p>	 <p>대출이자 납부일에 당행계좌 잔액 부족시 타행계좌 출금으로 연체 방지</p>

핀테크 기업

- 핀테크 기업의 고객들은 12.18일부터 핀테크 앱에 접속하여
오픈뱅킹 동의를 거친 후 이용 가능
- 오픈뱅킹 이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핀테크 기업의 기존
제공 서비스, 핀테크 앱의 성격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i) 모든 은행의 송금 서비스를 기제공한 경우 (예: 토스, 카카오페이)





- 핀테크 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 비용이 1/10 수준으로 절감되어
무료송금 건수 확대 등 소비자혜택이 크게 확대될 전망

【사례 3 : 주요 핀테크 기업 고객 수수료 정책방향 ('19.6월말 기준)】

기업명	고객 수수료 정책 방향	연간 펌뱅크 수수료 (핀테크 기업 부담)
Toss	(타 계좌로 송금) 10회/월 무료(이후 500원/건)	약 600억원
카카오페이	⇒ 무료송금 건수 확대 예정	약 400억원

ii) 일부 은행과의 제휴만 이루어졌던 경우 (예: 핀크,뱅크샐러드)

-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은행 계좌에 대해서도 연결이
가능해져 비제휴은행 계좌가 있었던 소비자도 서비스 이용가능
- 모든 은행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에는 제공이
어려웠던 신규상품도 활발하게 개발·출시 가능

① 월급 분할 송금  월급일 한번의 이체만으로 여러 은행 통장으로 나누어 송금	② 전 은행 계좌 연결 체크카드  1개의 계좌에서만 결제되는 기존 체크카드의 한계를 넘어선 체크카드 출시
③ 핀테크 공동계좌  모임계좌와 같은 핀테크 특화 선불전자 지급수단 공동 운영	④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가능  기존에 제휴가 어려웠던 은행의 계좌에 대한 조회 가능

iii)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 (예: 핀트)

- 출금·이체가 불가능했던 핀테크앱의 경우 별도 송금앱 접속 없이 하나의 앱에서 자금집금 후 one-stop 금융거래 가능

< 특화서비스 예시 : One App, One-stop 투자서비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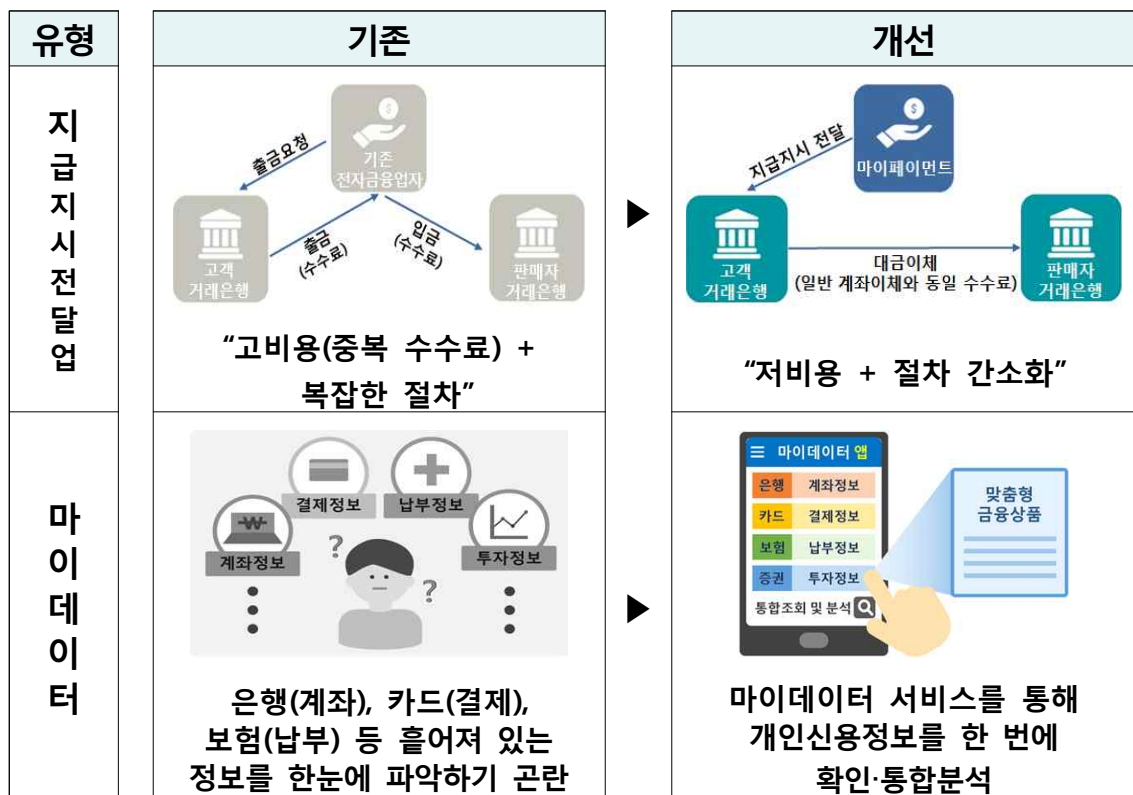
신규 Player

-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지급지시전달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 도입시 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출시 기대

*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기반하여 본인 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 받아 본인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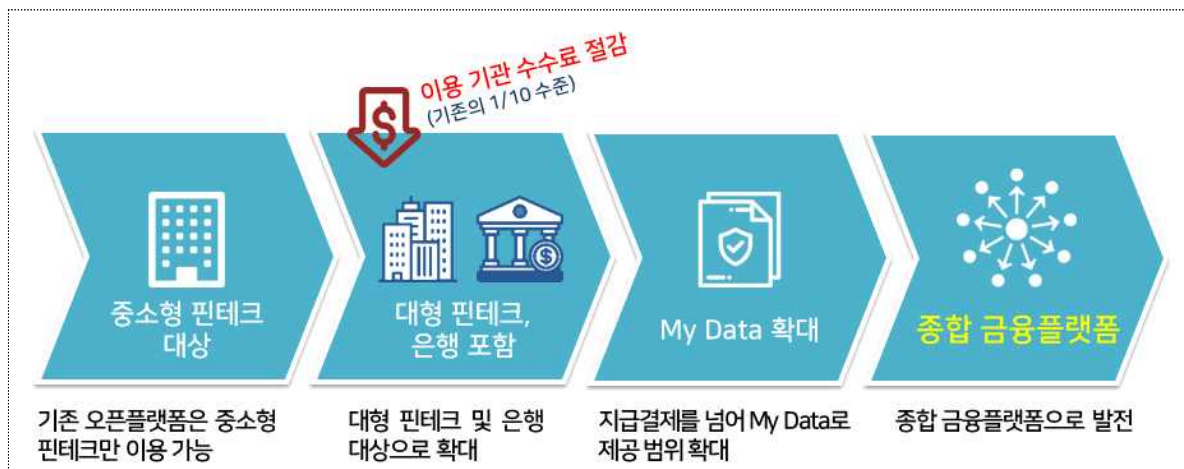
- 특히, 마이데이터 산업과 본격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경우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서비스 가능



6 기대효과

① 금융산업 전반 : 은행과 핀테크 간 장벽이 사라져 경쟁 가속화

- 오픈뱅킹은 단순한 결제망 개방을 넘어 종합 금융플랫폼의 출현 등을 통해 시장구조 재편 및 금융산업의 혁신으로 연결
 - 다양한 금융플랫폼이 등장·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금융산업 자체의 부가가치 창출 여력도 확대
- 저비용 고효율 간편결제 활성화로 경제 전반의 거래비용이 절감



② 핀테크 기업 :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져 금융혁신이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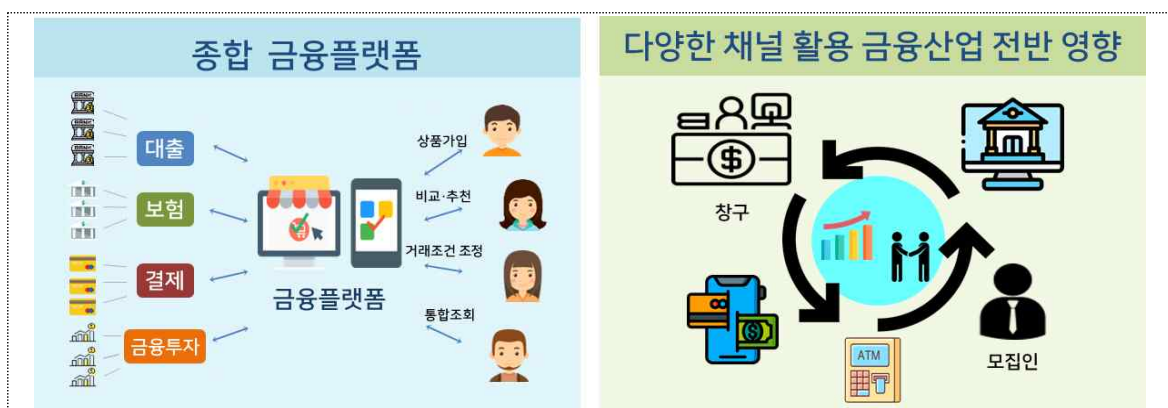
- 은행권 의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 및 혁신적 서비스 출시 가능

* 오픈뱅킹 단일접속 만으로 18개 은행과 연결되는 개방형 인프라



③ 은행 :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성장 기반 마련

-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간편송금, 간편결제 등 신규 사업에 진출하여 핀테크 기업과 직접 경쟁 가능
- 동시에 핀테크 기업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बैंकिंग(banking as a platform)으로 전환
-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 획득 및 유지, 금융상품 개발, 유통 등 금융 전 분야에 경쟁력 제고 기회로 활용



④ 금융소비자 : One 앱, All 금융서비스

- 금융플랫폼 출현으로 단순 결제·송금을 넘어 대출, 지출분석, 상품 비교 구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One-stop으로 이용
- 특히, 오픈뱅킹을 통한 손쉬운 상품 비교가 가능해져 간편한 자산관리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자산형성 기회가 크게 확대



7 향후 계획

① 오픈뱅킹의 안정적 운영 뒷받침(계속)

- 이용신청 후 절차를 진행 중인 핀테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안점검 등 후속 절차 적극 지원

② 오픈 파이낸스를 향한 오픈뱅킹 고도화 추진 ('20년 上)

- 연구용역을 통해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
 - i) (참가기관 추가) 현재 은행 위주의 참가 금융회사를 확대하여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 추가 참여여부 검토
 - ii) (제공기능 다양화) 현재 예·적금 등 보유자산 측면 조회·이체에 한정된 API 기능을 다양화*하는 방안 검토
 - * 예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위해 대출·연금 관련 API 기능 추가 등 검토
 - iii) (채널 확대) 모바일·인터넷 외 ATM 기기, 점포 등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한 오픈뱅킹 서비스 허용 검토
 - iv) (제도 간 연계)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새로운 금융산업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시너지 창출 방안 모색
 - v) (소비자 편의 확대) 오픈뱅킹을 통한 휴면계좌 활성화, 가상계좌 등 이용가능 계좌 확대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추진

③ 오픈뱅킹 안정성 확보 ('20년 下)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
 - 표준화된 자금이체 기능(API) 제공 의무화, 결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등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을 법률에 명시
 - 또한, 금융 인프라로서 오픈뱅킹의 신뢰성·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